“부처님 법 전합시다”…청년 전법도량 ‘우뚝’

봉선사, 첫 청년연합법회 봉행
경동대 · 상월청년회 · 광동학원
미래 한국불교 주축들 ‘한자리’
호산 스님 “청년 지원” 약속도

남양주 봉선사=김내영 기자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한국불교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불자들의 당당하고 굳센 외침이 봉선사 청풍루를 가득 메웠다. 어린이,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이 다함께 어우러진 이 자리는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야단법석이자 서로의 전법 활동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화합의 장이기도 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는 11월 19일 경내 청풍루에서 ‘봉선사청년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처음 열린 청년연합법회에서는 경동대 불교학생회 창립과 상월청년회 5기 입재, 전법기금 전달 등을 통해 미래세대 전법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법회에는 경동대 불교학생회, 상월청년회, 상월청년합창단, 상월비보이단과 광동중, 광동고, 의정부광동고 학생들이 동참해 미래 한국불교 성장의 동력이 될 것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 수국사 주지 보관 스님(중앙종회의원), 총무원 문화부장 혜공 스님, 총무원 감사국장 덕운 스님, 기획국장 금오 스님,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법정 스님,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문종 스님, 총무원 호법과장 보타 스님, 상월청년회 지도법사 무공 스님, 봉선사 대학생전법단 전법위원 혜명 스님, 김남명 봉선사 교구신도회장, 이도피안 봉선사 신도회장, 신인섭 경동대 기획부총장,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김순남 신한대 교수 권준희 · 손범준 · 이범욱 교법사 등이 참석했다.



봉선사의 첫 청년연합법회에서 주지 호산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청년불자들이 합장한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동대 불교학생회 ‘창단’

연합법회의 첫 순서로 경기북부지역의 최초 불교학생회인 경동대 불교학생회 창단식이 진행됐다. 경동대 불교학생회는 호산 스님이 봉선사 주지 소임을 맡은 이후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지도교수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노력한 끝에 만들어졌다. 경동대 불교학생회 지도교수는 신인섭 기획부총장이 맡으며, 학생 2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불교학생회 창단을 축하하기 위해 학생회 임원진과 지도교수에게는 상월결사 대학생전법단 고문 자승 스님(상월결사 회주) 친필인 ‘부처님 법 전합시다’ 액자와 발전기금 600만원이 전달됐다.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은 격려사에서 “청년불자들이 가득한 법회가 열리니 활기차고 기쁘다. 앞으로도 부처님 지혜와 자비를 배워갈 수 있는 자리가 더 늘어나길 바란다”며 “미래세대 불자들의 걸림돌 없는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주 경동대 학생회장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불교학생회 성장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박준형 상월청년회장과 조성진 신한대 학생이 축하의 꽃다발을 선사했고, 법회 동참자들은 박수와 환호로 경동대 불교학생회의 활기찬 시작을 응원했다.

상월청년회 5기 입재

상월청년회 5기 입재식도 이어졌다. 상월청년회는 아홉 스님의 상월선원 정진결사 정신을 이어받은 청년회로, 2021년 창립돼 올해 5번째 입재를 맞게 됐다. 상월청년회 지도법사인 수국사 주지 보관 스님은 5기를 이끌어갈 박준형 회장, 이선영 부회장, 이윤수 관리부장, 정은빈 교육부장, 이수연 홍보부장 등 임원진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봉선사는 상월청년회 발전기금으로도 300만원을 전달했다. 전법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천경기포교사단 군 10 · 11 · 12팀에 각 50만원의 포교활동 지원금도 수여됐다.

보관 스님은 “불교를 알리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주길 기대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박준형 상월청년회장은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전법 원력과 호산 스님의 청년불자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상월청년회가 5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매달 연합법회와 봉사활동, 문화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법문을 대신해 대중과 봉선사 염송문을 합송했다. 청년들에게 염송문을 읽는 역할을 부여해, 법회의 주체적인 동참과 자긍심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호산 스님은 끝으로 “광동학원은 올해 안에 자모님들을 주축으로 한 합창단 창단을 준비해주길 바란다. 연합법회 청년들은 한 달 후에 있을 법회 전까지 한글 칠정례를 외워오면 푸짐한 상품과 장학금 등을 수여하겠다”며 “한국불교 미래 이끌 청년불자들의 활발한 전법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통 큰 공약’을 내걸었다.

무엇보다 이날 법회에서는 특별한 전법기금 전달식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상월청년합창단은 그간 모은 공연 수익금 630만원을 광동중고등학교 학생 21명의 장학금으로 회향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김세용 상월청년합창단 부단장은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의 전법 원력에 힘을 보태고자 했다”고 전했다.

향후 봉선사청년연합은 매달 셋째 주 일요일 정기법회를 갖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갈 전망이다. 다음 달 법회는 봉선사 템플스테이가 예정돼 있다.

“동국대 ‘대학평가 8위’…건학위 덕분”

윤재웅 총장, 간담회서 소회
‘등록금 · 취업 걱정없는’ 강조한
자승스님 원력 · 돈관스님 헌신
내년 3월 중 대규모 모연 계획

“동국대가 3년 연속 톱10 안에 들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학교에 건학위원회가 구성되고, 스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11월 21일 총장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8위를 기록한 것에 소회를 이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1994년 시작된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동국대는 2000년대만 해도 ‘인서울 대학’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순위를 기록했다. 동국대는 2003년에는 30위, 2005년에는 44위였고, 2010년대에는 17~20위권 안팎의 성적표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동국대는 3년 연속으로 10위권 안에 들었고, 올해에는 8위를 기록하며 ‘톱10’에 안착하는 분위기다.


소회를 밝히는 윤재웅 동국대 총장.

윤 총장의 소회처럼 이 같은 동국대의 발전에는 2021년 4월 발족한 건학위원회의 역할이 크다.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을 위해 ‘지역 미래 불자 육성 장학’ ‘동국건학장학’이 신설됐다. ‘동국건학장학’은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제도이며,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지역 사찰이 동국대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에게 직접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이 같은 건학위원회의 장학제도는 인재육성과 신행을 통한 불교 포교를 모두 아우르고 있어 불교계 안팎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22년 처음 시작한 동국대 취업박람회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국내 최대 취업박람회로, 첫 해에만 삼성전자, 테스라 등 국내외 대기업, 공기업은 물론 유망 스타트업까지 309개 기업이 참여해 화제가 됐다.

“자승 스님께서 화두로 던진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은 학교의 발전 동력이 됐습니다. 또한 이사장과 건학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돈관 스님의 열정과 헌신도 동국 중흥의 요인입니다. 실제 이사장스님은 일주일에 5~6일 출근하며, 학교법인 산하 학교 및 기관들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른스님들의 원력과 헌신이 작금의 결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은 학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을 내보였다. 내년 3월 중 대규모 기금 모연 행사를 열고, 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학위원회의 ‘동국 중흥이 불교 중흥’이라는 원력 아래 학교는 어느 때보다 종단과 결속력을 가지고, 화합하고 있습니다. 총장으로서 할 일은 발전기금을 모연해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죠. 동국 중흥과 불교 중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중일 기자

“물러섬 없는 정진”…한마음선원 수계법회

19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371명 수계…불제자로 거듭나
인하대 불교동아리 4명 수계
5200여 명 운집해 함께 ‘발심’

“오늘 수계법회에 동참한 모든 대중들은 업식의 무명 집착에서 벗어나 본래의 성품을 회복하고자 오계를 받아 지니고 정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수계자들은 이제 삼귀의를 행하며 오계를 받아 지니고 청정하고 무한한 본 성품을 의지해 물러섬 없는 정진을 다짐하오니 자비로 저희를 어여삐 여기소서.”

한마음선원 신도들의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해 진정한 불제자 나아가겠다는 발원이 이어졌다. 수계를 받은 신도 대중은 이날 불제자로서 첫 걸음을 내디뎠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11월 19일 안양본원에서 제35차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수계법회에서는 대행 선사를 증사로, 이사장 혜수 스님을 계사로 371명이 수계를 받아 불제자로 거듭났으며, 4844명이 연비를 받으며 불자로서 발심을 다시 되새겼다. 또한 인하대 불교동아리(지도법사 혜한) 소속 학생 4명이 수계를 받아 정식 불자가 돼 눈길을 끌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이 연비하는 모습.

이날 수계자들은 부단한 정진을 통해 진정한 대자유인이 될 것을 발원했다. 수계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저희 후계자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행을 하여 나와 주변을 밝히고 밝은 자비의 빛이 항상 드러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 나가겠다”며 “이제 저희 수계자들은 삼세의 부처님과 스승님이 일러주신 한마음의 도리를 마음 깊이 새겨 탐진치의 삼독심을 녹이고 돌고 도는 생사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대자유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오계를 받아 지니고, 지켜나가는 것은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며 “대행 선사가 말씀하셨듯이 오계를 실천함으로써 좋은 인연으로 남을 이끌어줄 수 있는 불제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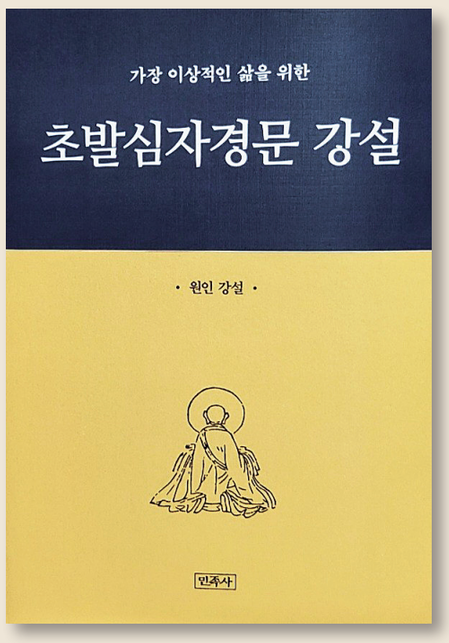
안양본원과 전국 지원에서 5200여 명이 운집한 법회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등 가족단위 동참자가 많아 눈길을 끌었다. 어린 손녀와 함께 법회를 찾은 장경례 씨는 “우리 딸이 사업을 해서 많이 바빠 내가 손녀를 데리고 수계법회에 동참했다”면서 “손녀가 4살인데 매일 ‘부처님은 내 마음 속에 있다’고 노래를 부를 정도로 신심이 있다. 이런 손녀와 함께 수계법회에 참여하게 돼 기쁘고, 부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함께 법회에 참석한 정태권 씨는 “직장생활을 하며 힘든 점도 있는데 주인공 관법 수행을 하며 이겨내고 있다. 또한 매년 선원에서 연비를 받으며 불자로서 재발심의 계기를 삼는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태백산 큰마음도량 회주
원인 스님의 인생교양서

가장 이상적인 삶을 위한
초발심자경문 강설



초발심자경문은
수행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놓쳐서는
안 될 주옥같은 가르침이다.
그래서 누구나 평생 여기에
의지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초발심자경문을
50여년 선원과 토굴에서
정진한 원인 스님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강설한 인생기본서!

큰마음회 010-7365-6331

한국전통 자연치유 대체요법
뇌와 장을 살리는
힐링마사지

암, 당뇨, 고혈압, 치매, 우울증 등을 자연치유 하는 쾌뇌장 힐링요법

관리프로그램
쾌장경락마사지 (8만원)

기공치유
성인병관리
심리치유
오장육부 기능회복
(간, 심장, 비장, 폐, 위, 신장)
복부비만 등 복부관리
목, 어깨, 골반, 다리 등 각종 통증관리
스트레스 만성피로
각종 뇌질환(우울증 등) 관리
노화 예방, 장수 회춘 관리
영적치유 만트라명상



약손월드힐링센터 화성지부(향남) 010-7302-5620